

Sinopec, 대규모 가스전 발견

Chongqing 소재 매장량 1200억입방미터 추정 ... 추가조사 필요

중국 Sinopec이 Chongqing에서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했다.

중국 중경만보(重慶晚報)에 따르면, Sinopec은 Chongqing 지역에서 추정 매장량 1200억m³ 규모의 가스전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아시아 최대 규모인 쓰촨(Sichuan)의 다저우푸광가스전(達州普光氣田)과 비슷한 매장량이다.

Sinopec은 Chongqing 가스전의 전망이 밝지만 아직 초보단계의 조사를 마친 상황이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.

황원성(黃文生) Sinopec 대변인은 “가스와 석유의 생성환경 및 조건이 다저우푸광가스전과 매우 비슷했다”고 밝히고 “그러나 매장량이 1200억m³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는 불확실하다”고 설명했다.

앞으로 탐사가 더 진행돼 봐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아무 것도 없을 수 있고 진짜 대형 가스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.

가스전은 처음 탐사작업에서 최종 채굴에 이르기까지 지질구조, 3차원 지질탐측, 시굴 등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특히, 3차원의 지질탐측에서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도 실제 채굴과정에서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거나 경제성이 떨어져 채굴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0/27>